

“품격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이재명은 합니다!”

- 이재명, “품격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9대 공약 발표
-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기반 마련”, “수소경제 허브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육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부산 미래비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품격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일 10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의 미래비전으로 “품격있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제시하며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 연계 교통망 확충",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기반 마련", "해운산업 메카로 부산 육성", "수소경제 허브로 부산 육성, 부품산업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적극 지원",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로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로 부산 육성",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 도시로 부산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숲길, 청년 창업문화공간, 청년기본주택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부산 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벨트 완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부산광역시 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부산이 동북아의 항만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개항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수립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가덕신공항 공항공사 신설 ▲가덕도 신공항-부산신항-철도 연계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 ▲가덕도 일원 공항복합도시 건설 및 세계적 물류 기업 유치 적극 지원 ▲LCC 유치 적극 지원 ▲부·울·경-가덕도 신공항 연결 GTX급 철도망 구축, 연결도로 및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유치 기반 마련"으로 차질 없는 유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 세계박람회 조사단 현장 방문 시 직접 영접 ▲북항재개발 2030년까지 완료 ▲C-Bay Park선 트램 등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충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해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산업 메카로 부산 육성"으로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히고, ▲해운거래소 설립 적극 지원 ▲해양 데이터 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 과정' 신설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부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허브로 부산 육성, 부품산업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 구축, 수소경제권 실현 ▲부산신항 수소 생산, 공급시설 조속 구축 ▲LNG, 수소, 암모니아 에너지 메가 클러스터 조성 추진 ▲부산 전통 제조업의 미래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로 핀테크, 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로 부산 육성"으로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응한 지역 산업 발전 방안을 밝히며, ▲핀테크 연구단지 조성, 지역기업 디지털 지원 강화 ▲블록체인진흥원 부산 설립 및 관련법 제정 지원 ▲가상화폐 공개, 증권형 토큰 발행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OTT, 게임, 웹툰 시장을 강조하며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 도시로 부산 육성"을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국가지원 체계화 ▲영화의전당 일원 인프라 정비 ▲영화영상, 게임, 웹툰 산업 인프라 강화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박차 ▲서부산권 대상 세계적인 전시 공간 및 MICE 시설 유치 지원 ▲낙동강 하구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 확충,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으로 향후 동남권 도시 간 생활권, 경제권 형성, 나아가 국토 남부권의 연계 강화를 밝히고, ▲울산-양산-김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사업' 신속 추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재정사업 추진 지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가덕신공항 및 용동~경남도청 구간 연장 방안 모색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등 광역도로 확충 신속 추진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 시티 중앙역'으로 강화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숲길, 청년창업문화공간, 청년기본주택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부산 도심의 단절과 쇠퇴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 지하화 및 철도시설 재배치 추진 ▲기존 경부선 철도 구간에 숲길, 청년창업문화공간, 청년기본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벨트 완성"으로 부산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서부산의료원 적기 개원 지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적극 지원 ▲부산의료원 기능 강화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광역시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항만을 거점으로 하는 물류의 힘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원동력"이었다고 밝히고 "물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혈액"이었고 "부산은 그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었다고 강조하며 부산이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지방의 미래가 되고 유라시아~태평양의 새로운 관문"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